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양천성당 주임 겸 제18양천지구장

## |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가까운 과거에 다른 많은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 같은 면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것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역병’으로 야기된 상황은 우리의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은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많은 종교인이 그런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오로의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필리 4,12)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혹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고 사는 정신을 일컬어 공자는 ‘안빈낙도(安貧樂道)’라고 하였습니다. 원래는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것’을 뜻하지만, 사도 바오로의 말씀과 통하는 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안빈낙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필리 4,13) 즉,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오로의 확신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하늘나라로 초대하시지만, 그 초대에 제대로 응답해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석한 이들은 소수였듯이,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이들 역시 소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모임이 취소된 요즘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 코로나와 상관없이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 그들을 돌보는 일에 여념이 없는 방역 종사자들과 의료진들,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 9일 기도, 혹은 렉시오 디비나 등을 시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산다면, 이 어려운 시기가 좋은 결실을 맺는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필리 4,13)



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빛의 존재,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것이 아니라고 손을 내어 주는 등대 같은 존재. 그 빛이 있기에, 그 빛을 믿기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